

## 〈기술정보〉

## 河川環境이란 무엇인가?

우 효 섭\*

## 1. 강은 단지 排水路인가?

강은 물의 침식작용에 의해 땅위에 만들어진 ‘물길’이다. 강은 주위의 남는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낮은 곳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이 점만 생각하면 강은 자연 排水路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강은 단지 배수로인가? 우리는 자연을 이야기할 때 자주 ‘山河’라는 표현을 쓴다. 특히 주위가 산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山과 江은 빼놓을 수 없는 자연경관이다. 물론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인 우리에게 바다는 산이나 강만큼 생활에 긴밀하지만, ‘山海’하면 ‘珍味’가 연상되듯이 ‘山河’라는 말만큼 친숙하고 한편 경외로운 自然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에게 강은 산만큼 흔하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이라 하지만, 개울, 시내, 강의 전체 길이도 사방 1km 면적당 700m나 된다<sup>(7)</sup>. 규모는 크지만 물보라 치는 개울이나 푸른 강이 드문 중국의 隴北지방이나 滿洲지방, 나아가 사막과 초원만 있는 몽고 등에 비하면 우리는 풍요로운 물줄기로 둘러싸인 江山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강은 옛부터 우리선조들의 삶의 터전이자 마음의 안식처이었다. 강과 정지, 경세, 군사, 문화와의 역사적 관계<sup>(1) (6)</sup>를 구태어 해야리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강가에서 모여살고 강을 통해 서로 오가고 물자를 날랐다. 고려시대 水都 평양에 살았던 鄭知常의 詩를 들여보자. 江이라는 抒情物을 통해 우리선조들이 그들의 哀歡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가를 들을 수 있다.

雨嶽長堤草色多  
送君南浦動悲歌  
大洞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綠波

비 맺은 긴 독에 풀빛 짙은데  
임 보내는 남포엔 구슬픈 노래.  
대동강 물 어느 때나 다하려는가,  
해마다 이별의 눈물 보태는 것을.

강은 우리선조들의 慰樂의 場으로서도 귀중한 역할을 하여왔다. 강가에 정자를 짓고 자연을 노래하는 風流는 많은 우리선조들이 즐겨왔으며, 이러한 냇가의 정취는 선비들뿐만 아니라 멋을 아는 기생 黃眞伊까지 靑山里 淸溪水를 노래하게 하였다. 이러한 강가의 풍류는 지금까지도 내려와서, 보다 덜 문화적이지만 경치가 좋은 강가에 의례 있는 것은 먹거나 마시는 집들이다.

이러한 소위 ‘점잖은 위락’ 이외에도, 넓은 백사장과 푸른 물을 가진 강은 전통적으로 마을 이웃들 간의 소박한 위락의 장소로 애용되어 왔으며, 그 중 하나로 江가에서의 川獵이나 花煎놀이(봄철에 강가에서 마을단위로 부녀자들이 행락을 즐기는 놀이)의 전통은 지금도 농촌에서 볼 수 있다.

여기까지 보면 강은 분명히 단순한 排水路로서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用水나 水運 등 물질적 이익만 주는 것도 아니며 우리에게 또 다른 무엇을 베풀고 있는 것이다. 아니 베풀다가 보다는 우리가 강의 무엇인가의 마력에 끌려 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원 수석연구원

이 가고 싶고 더불어 지내고 싶은 情緒를 가지게 한다. 그것이 무엇일까?

## 2. 親水性的의 의미

親水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표현이다. 그 의미는 물에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물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물가에 가고 싶어하고, 바다나 강을 보면 아! 하는 무언의 감탄사가 나왔던 추억을 하나 둘 씩 갖고 있을 것이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이를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물에 대한 무의식적인 동경심 때문이라 한다<sup>(4)</sup>. 이러한 무의식적인 동경심은 어디에서 나올까? 혹자는 그 이유를 進化論에서 찾고 있다.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근원적 고향은 물(바다)이다. 물속에서 有機物이 생성되고 이 유기물이 生物이 되어 수억만년을 진화하여 인류가 되었으며, 지금도 우리몸의 70%가 물인 점을 강조한다. 혹자는 우리들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물속에서 떠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독교의 창조설에서도 강은 아담과 이브 시대부터 에덴동산을 적시던 풍요로운 '피조물'로서, 구약성서의 창세기에 의하면 에덴동산에서는 지금의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등 4개의 강이 발원하여 사방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적혀있다. 거창하게 진화론이나 창조론을 이야기하지 않고도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친수성의 發露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물놀이, 뱃놀이, 낚시, 천렵 등은 그 어느 하나를 들어도 '해보고 싶다'라는 心情이 튀어나오게 한다. 산골짜기 바위 사이를 흐르는 溪流, 흰조약돌이 깔린 개울, 하얀 모래위를 잔잔히 흐르는 시내, 그리고 마침내 悠然히 흐르는 江, 이 모두가 우리들에게는 '물이다, 흐르는 물이다'라는 感興이 머리속을 채우게 하며 보고 싶은, 느끼고 싶은 충동을 유발하게 한다. 이런 것이 친수성의 본질이 아닐까 한다.

동서양을 통하여 옛부터 공원을 꾸미거나 집안의 정원을 꾸밀 때도 물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심지어 고급음식점이나 술집에서 요란스러운 실내장식을 할 때에도 분수, 폭포 등은 빼짐없이 등장

한다. 이렇듯 사람들은 물에 대해 본원적 친밀감을 지니고 있다.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친수성은 사람에게 있어 '原初的 本能'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한편, 강은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주지만 때로는 일종의 두려움, 나아가 외경스러움을 자아낸다. 즉, 강이란 太古의 물줄기 혹은 山間으로부터 샘솟는 깨끗한 물로 연상되듯이, 맑게 정화시키며 흘러가는 영원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감각은 자연물 숭배에서 보여지는 원시적인 종교나 불교의 無想感과 연결되어 강을 신앙의 대상으로 간주해 왔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降雨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벼농사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특히 물의 확보에 대한 관심은 높아 祈雨祭 등 민속신앙이 발달하였다. 또한, 물로 인한 재앙이 닥치면 水神이 심술을 부린다고 믿고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바다에는 海神, 강에는 瀆神, 우물에는 井神 등이 있다고 믿어 음력 정월 보름이 되면 水神(龍王神)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sup>(5)</sup>. 또 국가에서도 祈雨, 祈雪, 祈寒, 榮祭와 그리고 水害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致祭하였다.

이렇듯 강과 물은 사람들에게 親水性和 畏敬性 등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 3. 하천환경의 의미

지금까지 강은 우리 생활에 물질적 이로움과 排水 역할 이외에 친수기능이 있음을 알았다. 그렇다면 강이 우리 생활에 주는 역할이 이 세가지 뿐인가? 이점에 대해서 우선 강의 역할에 대해 조금 구체적으로 거론할 필요가 있다. 강은 첫째 利水機能, 둘째 治水機能, 셋째 環境機能이라고 한다<sup>(6)</sup>. 첫째와 둘째 기능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실상 지금까지 국토관리면에서 강(하천)을 이야기 할 때 주로 고려해 온 것이다. 세번째 기능인 환경기능은 아직 우리에게 생소한 것 같아 들리지만 사실은 이수 및 친수기능 만큼 옛부터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왔다. 즉, 앞에서 이야기 한 親水性은 우리가 늘 느껴왔지만 강의 역할으로는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서 자연의 인부인 강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환경적 기능 중

하나인 것이다.

여기에는 자연생태계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스스로 깨끗이 하는 自淨作用과 각종 농·식물의 棲息處로서의 기능 등 자연보전기능을 생각할 수 있다. 강은 대지를 침식하거나 퇴적시켜 언덕과 골짜기와 범람원을 형성하여 왔다. 특히, 강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식환경은 어류, 패류, 수생곤충, 수중 무척추 동물, 수조류, 담수식물 등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귀중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강의 자연생태계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인간들에게 직접적으로 삶의 풍요로움을 안겨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은 주위 산과 들과 어울려 하나의 독특한 자연경관을 창출하며, 이러한 탁 트인 자연무대는 옛부터 사람들에게 축제 및 놀이의 장을 제공하여 왔다. 이러한 河川空間은 특히 과밀화 되어가는 도시에서 귀중한 공간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다시 정리하면, 강은 배수로로서의 치수기능과 용수원 등 물질적 혜택을 주는 이수기능과 더불어 환경기능이 있다. 이러한 강의 환경적 기능을 河川環境機能이라 말하며, 自然保全機能, 親水機能, 空間機能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면, 하천환경이란 무엇일까? 하천환경이란 이러한 귀중한 기능을 제공하는 물과 주위 공간으로 구성된 하천(강) 그 자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강을 이수와 치수기능면에서만 보아서 강에 흐르는 물만 생각하였지만, 환경적 기능에서 본다면 강은 흐르는 물은 물론 강가의 모래밭, 들, 협곡 등 주위 공간과 그 속에 서식하는 동·식물 모두로 구성된다. 이것이 하천환경인 것이다.

#### 4. 하천환경관리

그렇다면 이렇듯 귀중한 하천의 환경적 기능을 어떻게 관리하여야 할 것인가? 최근 한 민간단체에서 한강되살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 운동에서 강조하는 것은 물론 자연보전 입장에서 한강을 되살리자는 것으로, 거기서 자주 인용되는 것 중의 하나가 과거 한강이 오염되기 전의 추억을 한강변에 살았던 노년층을 통해 듣는 것이다. 물이 깨끗하였고, 고기가 뛰어 놀았고, 수양버

들이 춤추는 강변과 백사장을 한가히 거닐었던 회상의 추억을 吐露한다. 또 한가지 예로 수질분제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 경기도 경안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설문지를 통해 미래의 경안천에 대한 장래 바람을 물었더니<sup>(2)</sup> 응답자들의 60%가 물놀이와 친림을 할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

여기서 하천환경관리의 방향은 이미 결정된 것이다. 물을 깨끗하게 유지시키고 주변을 옛날의 환경으로 되돌려서 하천 생태계를 최대한 保全 復元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에 내재해 있는 강(물)에 대한 親水性向을 만족시킬 수 있게 관리하는 것이다. 문제는 한 가지 있다. 과거에 비해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졌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많아지니 사는 집도 많아지고 모든 것이 넘치게 되었다. 따라서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옛날처럼 한가로이 강변을 거닐고, 더우면 벽감고, 배고프면 고기잡아 끓여먹고, 선비들은 정자에 둘러앉아 강물에 떨어지는 버들잎을 소재로 對句하는 정취를 그대로 기대할 수는 없게 되었다. 특히 도시를 흐르는 강에서 위와 같은 정취를 모든 도시민들에게 베풀어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뿐만 아니라 이미 현대화된 주변환경과도 꼭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대중의 시대에 살고 있다. 특정인이나 집단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중을 골고루 위하는 시민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여름 휴가철에 山河를 보라. 수많은 사람들이 산과 강에 몰려 아우성거리는 것을 생각하면, 좁은 우리 땅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모두 한가했던 과거와 같은 자연의 情趣를 제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과 맥락을 같이하는 말로 어느 레저산업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sup>(3)</sup>.

“인구가 1천만명일 때는 자연에 손을 안대고도 보전이 가능하지만 4천만이 넘어서면 자연에 손을 대어 휴식욕구를 건전하게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현대 대중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강의 자연생태계 보전과 사람들의 본원적 친수성향을 동시에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강을 가꾸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하천환경관리는 리

환경회의의 주제인 '환경적으로 건전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 (ESSD)'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하천환경관리의 이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sup>(1)</sup>.

- 하천환경은 국민 생활환경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하천환경 관리는 이수관리 및 치수관리와 더불어 국민 복지에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민의 요청에 부응하여 풍요롭고 윤택한 하천환경의 보전과 창조에 노력하여 국민의 건강과 문화생활의 향상에 진작하여야 할 것이다.

- 하천환경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대 국민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자연환경의 일부로서, 이의 관리는 장기적, 광역적, 포괄적인 입장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하천환경은 그 유역의 자연 풍토, 생활환경, 문화, 산업, 경제 등의 지역 특성에 부합되도록 지역적, 단편적 관리가 아닌 수계별로 일괄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가 강을 관리하는데 있어 친수성만 고려하여서는 안되는 중요한 제3요소가 있다. 즉, 강은 원래 사람들에게 주어왔던 이수와 치수 기능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강에서 물을 끌어들이 식수로 쓰거나 공장을 돌리고 강물을 이용하여 배를 띄우거나 발전을 하는 이수기능과 홍수시 물을 잘 빠지게 하는 치수기능 등 기존의 강의 기능을 그대로 살리거나 가능하면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하천환경이 관리되어야 한다는 필수조건이 있는 것이다. 즉, 다음과 같은 기본 방침에 의해 하천환경이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sup>(1)</sup>.

**- 이·치수 관리와 조화된 하천환경관리**

하천관리자는 그 일부가 되는 호소도 포함한 하천에 있어서 치수, 이수 및 하천환경 기능의 전체로서 충분히 조화가 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 하천수량 수질 관리의 일원적 관리**

하천의 수량 및 수질은 적어도 하천내에서는 일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 되어야 한다.

**- 하천공간의 적절한 보존 및 활용**

도시지역의 하천에서는 재해 차단지역, 피난공간, 긴급 수송로 등의 방재공간을 확보하고 하천과 그 주변에 존재하는 자연적 환경을 적절히 보전해야 한다. 또한 물과 녹색으로 형성된 터진 공간인 하천공

간을 귀중한 위락 공간으로서 확보하여야 한다.

**5 지금의 하천환경, 이대로 놓아두어도 될 것인가?**

'60년대 들어 우리나라는 무서운 속도로 공업화/산업화가 진행되었다. 매년 성장률 10% 이상이라는 놀라운 경제성장은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와 동시에 환경훼손이라는 부담을 안겨주었다. 강도 예외는 아니어서 물은 오염되고 강변은 파헤쳐져서 사람들에게 친수성의 대상이었던 강은 점차 혐오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즉, 과거부터 지역사회의 생활의 터전이며, 문화·정서의 교감대였고, 지역주민의 공동의 땅이었던 강은 어느 때부터인가 홍수 위험 등 기피적 존재로 여겨지고, 도시의 중·소하천은 불편한 존재로만 여겨져 복개되거나 도로 등 타용도로 전용되어 왔다. 한 예로, 서울시의 경우 '92년 기준으로 238km의 法定河川 중 50km가 복개되어 도로나 주차장 등 타용도로 전용되었다<sup>(7)</sup> (사진 1 참조). 그러나, 이 통계에는 대부분 暗渠化된 소규모 非法定河川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더구나, '90년대 이후 가속화 되고 있는 하천내 도로건설까지 고려하면 현재 많은 도시하천들이 하천의 환경적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고가도로나 고수부지 도로 등 하천내 도로는 총 158km로서 서울시 전체 하천연장의 67%에 달하고 있다<sup>(7)</sup>.

이에 따라, 대부분의 도시하천의 경우 지역주민들과의 친수적 관계는 물론 利水的 관계도 상실되고 단지 下·排水路로서의 역할만 남게되어 대부분의 도시에서 하천은 귀찮고 불편한 '천덕꾸러기'로 간주되어 가고 있다. 그 예로, 최근 水原川의 복개 계획 논쟁은 이러한 하천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변화를 단적으로 시사하고 있다<sup>(6)</sup>. 즉, 복개계획 찬성론자들은 오염이 심하고 도시관리상 불편한 수원천을 복개하여 도로, 주차장 등 타용도로 사용하고 자 하나, 일부 지역주민들은 과거부터 수원 8景중 4景이 위치하고 있고 수원 지역의 정신적, 문화적 중심지인 수원천을 정화하고 되살려 지역사회의 名所로 복귀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하천의 환경적 요소를 개선하여 하천과 지역사회와의 전통적 관계를 복귀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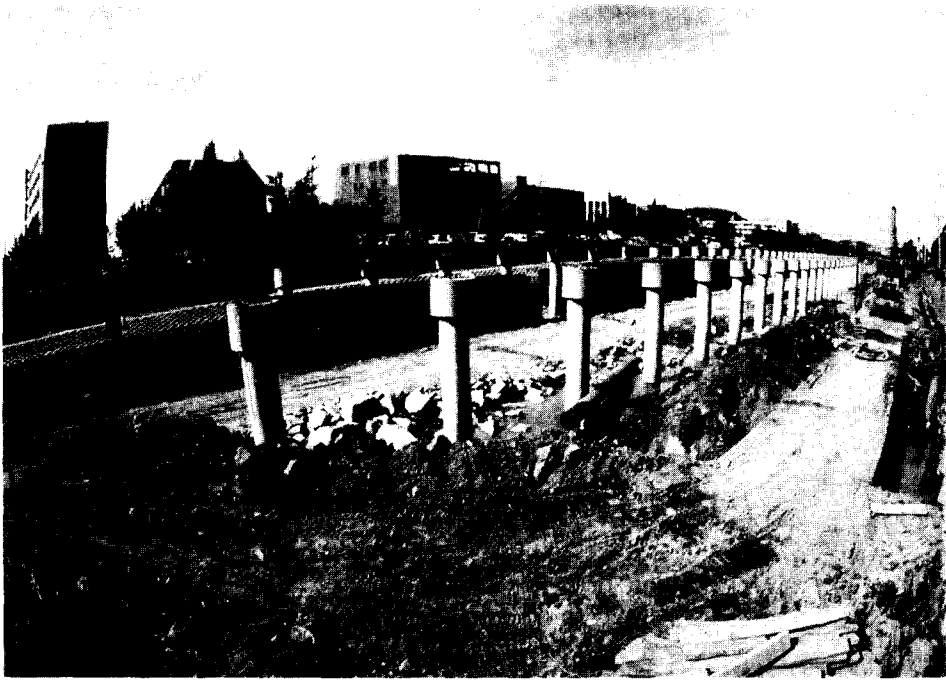


사진 1. 복개에 의한 도시하천의 소멸

이러한 관계 복구에 대한 하천관리자 및 지역주민들의 의지가 굳기 전에는 위와 같은 분세의 절정은 이제 대부분 실용적인 복개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도시하천의 황폐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농촌사회의 귀중한 자연자원이며 농촌풍경의典型중의 하나였던 田園河川(農村河川) 역시 그 관계가 변질되어 갔다. 이러한 관계 변질은 농경지 수요의 증가와 특히 '80년대 이후 비료, 農畜産 廢水 등 非點汚染源의 증가에 따른 수질악화에 따라 농촌과 하천과의 전통적인 관계였던 親水性이 상실되어, 현재 일부 농촌하천은 灌溉用 水源으로서의 기능만 유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농촌하천에서의 親水性의 상실에는 현대에 들어 지역사회의 정신적 여유의 감소도 한 몫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山川景觀중의 하나였던 내륙산악지역의 溪流 역시 '60년대 이후 댐의 축조로 水沒되거나 많은 곳이 하천변 도로건설 등으로 그 수려한 자연이 훼손되어 갔다. 山地河川은 특히 자연경관은 물론 다양한 생물의 棲息處로서

또한 水源으로서 그 중요성은 다른 하천에 비해 떨어지지 않으나 지금은 단순히 沓材 채취장이나 무분별한 慰樂의 場으로서의 역할만 남게되었다. 지금이라도 강원도 내륙의 홍천강, 평장강, 남한강 상류, 한탄강 등을 차로 달리면 접하는 것은 그 秀麗한 '가람'과 '시내'들이 하천변 도로공사의 잔재와 하천내 골재채취에 의해 영구히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일반 하천관리자들은 물론 나아가 국토 및 도시계획 담당자들은 이러한 추세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장차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심각하게 전망하고 지금까지의 河川觀을 새로이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 6. 지금부터라도 하천환경을 생각하자.

혹자는 하천환경이란 배가 두둑히 부른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이지 아직 우리에게 배부름 소리라고 말한다. 덧붙여서 이수 및 치수기능을 완전히 갖춘 다음에야 생각해보지 지금은 너무 이르



사진 2. 버드나무 가지와 자연석을 이용한 모래하천의 환경정비 (미국 미시시피주)  
(버들잎은 수중 먹이사슬에 유기물 공급원이 되고, 자연석(groins)은 세굴에 의한  
웅덩이를 형성시켜 물고기의 서식처가 됨)



사진 3. 청주 무심천의 하천환경정비

다고 이야기한다. 경제면만을 생각하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하천환경은 단지 돈을 강에 쏟아넣어 공원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하천환경의 본질은 이수나 치수사업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하면서 사람들의 정서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親水性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하천관리의 기본 명제인 것이다.** 즉, 강을 관리하는데 있어 취수원이나 배수로로서의 역할을 우선 고려할 것인가 환경적 역할을 먼저 고려할 것인가 하는 경제적 관계가 아니라, 하천환경은 이 치수 관리와 병행하여 나가는 동반자인 것이다. 예를 들면 조그만 시내를 치수목적으로 정비하는 경우 단순히 콘크리트로 저수로 호안을 축조하는 것보다 사진 2와 같이 버드나무가지를 이용하여 자연석과 함께 쌓음으로써 생태계에도 이롭고 보는 느낌도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물론 단순 치수사업비보다 돈이 조금 더 들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또 다른 예로 도시하천을 정비하는데 있어 단순히 정비하여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진 3과 같이 호안을 보다 친수성있게 꾸미고, 고수부지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천환경관리는 누가 하여야 할 것인가? 여기에는 전통적인 하천관리자는 물론 수질전문가, 생태계 전문가, 조정전문가, 민속학자, 인문지리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관련되어 있다. 하천환경면에서 각 전문분야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느 한 분야도 덜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하천환경관리가 기존의 이 치수 관리와 양립하여야 한다는 기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치수 관리를 담당하는 하천관리자가 타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하천환경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천환경관리가 보편화된 독일/스위스나 일본의 경우도 하천관리자가 하나의 팀을 만들어 하천환경관리를 행하고 있으며, 이 들 나라 만큼 하천환경관리가 정착화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경우도 하천전문가들이 타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수행하고 있다.

## 7. 맺는 말

역사적으로 보아 강의 환경기능은 이수나 치수기

능 이상 사람들의 삶에 밀접히 관계되어 왔다. 사실, 인구가 많지 않고 오염이 없었던 과거에는 水源으로서의 강의 기능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고, 치수사업도 몇몇 강변에 돌이나 흙으로 홍수벽을 쌓는 정도였다<sup>5)</sup>. 반면에, 강의 환경적 역할은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선조들의 정서와 문화에 밀접한 관계를 지녀왔으나, 금세기 들어 강은 점차 경제적 역할이 강조되어 용수원, 수력발전, 치수사업 등이 하천관리의 전부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60년대 이후부터는 물오염의 확대에 따라 이·치수 기능만 부각되었고 정신문화에 대한 여유의 감소와 맞물려 강의 환경적 기능은 소멸되었다.

하천환경관리란 이렇게 상실되버린 강의 환경적 기능을 되살리자는 것이다. 즉, 금세기 들어 물질과 경제 위주로 利 治水만 고려해 본 우리의 河川觀을 되돌아 보고 원래 하천이 우리의 정서와 문화적 삶에 기여했던 부분을 되살리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강을 무대로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종의 보전과 부활도 포함된다. 하천환경은 서울시 한강 종합개발 사업('82-'86)과 같은 특정목적의 사업에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목적이던 하천을 개발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항상 고려되어야 할 하천관리의 기본 명제인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하천환경의 부활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후에 생각해 볼직한 '사치'가 아니라 잃어버린 우리의 정서와 문화의 일부를 되찾는 '물문화'의 복원인 것이다.** 더불어 강을 최대한 깨끗하고 자연스럽게 가꾸어줌으로써 강을 무대로 하는 서식처 환경을 보전하고 복원시키는 것이다. 여기에 하천환경의 본원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 관 련 자 료

1. 건설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환경관리기법개발 기초 조사.연구, 1991.12.
2. 건설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안천 하천환경관리기 본계획(사례연구), 1991.12.
3. 시사저널, 1993.8.
4. 조나단 포리트 편저, 조우석 옮김, 지구를 구하자 (Save the earth), 청림출판, 1992.
5. 조선총독부, 조선하천조사서, 1929.8.

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환경연구팀, “하천과 지역 사회—과거와 현재, 앞으로의 전망”, 1993.5.20.
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환경연구팀, “우리나라 도시하천의 통계분석”, 대한토목학회 정기 학술발표회, 원광대학교, 1993.10.(예정)

